

# 이 風塵世上에, 봄 香氣같은 이야기를

〈걸프 전쟁〉〈수서 비리〉〈의원 내물 외유〉등으로 세상은 어지럽기만 하다. 3월은 새싹이 돋고, 꽃 피는 희망찬 계절이다. 이 축복의 계절에 잠시 세상의 어지러운 이야기는 뒤로 미루고, 봄 향기 같은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

그 까닭엔, 그동안 5년여 동안 이 연합회보에 칼럼을 써 오면서 나는 환경오염의 위해성과 환경보호의 당위성을 정리하기 위하여 꼬집고, 할퀴는 목청을 높여 왔다. 그래서 때로 박창근의 글은 날카롭고(좋은 뜻에서), 매사를 부정적으로(나쁜 뜻에서) 평가한다는 소리도 싫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계절에 잠시, 피로에 지친 자신을 수습하기 위해 봄 아지랑이가 피는 언덕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5년전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의 초청으로 캘리포니아주의 몇몇 도시를 순회하면서 환경보호 강연을 한적이 있었다. 그때 일정을 마치자 생각지도 않은 거금의 사례비가 생겼다. 그래서 이기회에 평소 가 보고 싶었던 요세미티 국립공원에나 가서 몇일 쉬기로 하고, 여행의 멋을 즐기기 위해 주위의 만류도 뿌리치고, LA에서 샌프란시스코 까지 기차를 탔다.

초행 길을 그래도 기차와 버스 등을 이렇게 저렇게 이용해 다행히 요세미티까지는 왔는데, 아뵘새 미리 예약을 하고 오지 않아 빈방이 없다. 모두가 예약으로 이루어지는 미국 사회를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때가 12월 한 겨울이라 괜찮으려니 하고 왔다가 낭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마침 그 날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로 연휴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다.)

하여간, 밖은 캄캄하고 (마지막 서들로 도착해 밤 10시가 넘었다.) 추웠으며, 꼬박 하루 반을 달려와 피곤했고, 배도 몹시 고팠다. 그래서 부질 없는 일인줄 알면서도 다시 카운터에 가서, "Could I talk with your manager?"라고 지배인을 불러내, 내가 한국에서 온 환경보호운동가로 일부로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성공한(아부 뿐만이 아니다.) 자연보호 실태를 보러 왔다고 정중히 부탁도 하고, 한국식으로 공갈(마침 캘리포니아주 의회의 초청장도 있어, 그것을 무기로?)도 쳐 보았지만, 지배인도 난처한 표정으로 속수무책이란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발길을 돌리는데, 그때 한 여자의 음성이 나를 불러 세웠다. 30대 초반의 금발 미인(미국 여자라 美人이기도 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美人이 였다.)이 였다. 우연히 내 딱한 사정을 듣게 되었다면서 괜찮다면 자기가 예약한 랫지(숲속에 지어 놓은 작은 오두막으로 미국 국립공원에 있는 야외 숙박시설)에 여분의 침대가 있는데 어떻겠느냐?고 묻는 것이 아닌가? 이게 웬 날 행운인가? 크리스마스 이브라더니 하늘에서 천사를 내려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

"오! 땡큐"에 "유아 베리 카인드" 어찌구저찌 구 소리가 목구멍에서 막 쏟아져 나오려는 것을 꼭 참고, 점잖게 〈꼭 친절을 베푸시겠다면 거절할 수도 없겠죠〉라고 미국식으로 승락을 했다.

6평 정도의 아늑한 통나무 오두막 방에는 침대 세개와 책상과 걸상이 각각 하나씩 있었다. 그리고 무척 더웠다. 우리는 서로 침대를 정하고, 식당에 가기 위해 보따리를 풀어 옷을 챙기는데, 그녀는 입고온 작업복 바지 대신 스커트로 갈아 입

# 생각한다

으려는지 짐에서 스커트를 꺼내들고 망서리는 표정이다. 그래서 잠시 나가 있겠다고 하자, 그녀는 추운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며 자기가 눈을 감고 옷을 갈아 입으면 될 것이 아니냐고 해서 우리는 또 한바탕 배를 잡고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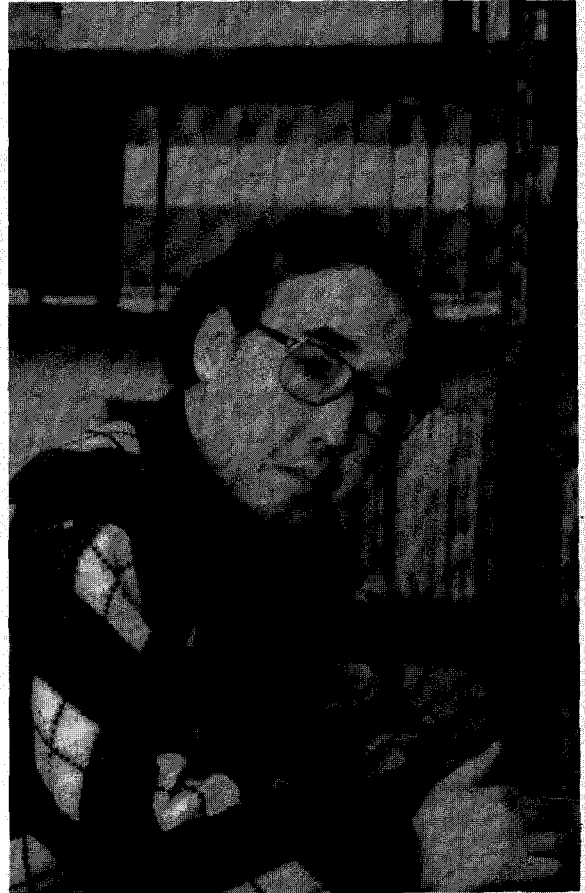
우리는 늦은 저녁을 먹기 위해, 안내소 옆의 카프테리아 식당으로 갔다. 허기진 배를 신나게 채우고 있는데, 마침 공원 직원으로 짜여진 성가대가 식당안에 들어와 크리스마스 케를 부르는 것이 아닌가?

필자 생애에 이런 멋진 크리스마스 감동은 처음이었다. 그렇게 그리던 요세미티에서 기적적으로 잠자리를 마련했고, 배는 부르겠다. 감동적인 케를 들으니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 였다.

그녀도 분위기에 취했는지, 말이 많아지고 포도주를 석잔이나 비운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축하주로 마시려고 특별히 얻어 온 미사용 포도주(성당에서 미사때 쓰는 포도주)가 랫지에 있다며, 그것을 구하게 된 에피소드를 말하는데 웃음 반 이야기 반의 각텔이 순진하기 이룰데 없어, 그녀가 천성적으로 착한 여자임을 알았다.

우리는 랫지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크리스마스 파티를 펼쳤다. 그녀의 보따리속에서는 미사용 포도주 뿐만 아니라, 이름만 들은 최고급 상어 알 통조림에 중국산 왕해바라기 씨 등 분위기 있는 먹거리가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사는데 중학교 선생님이로 생물을 가르친다고 했다 그래서 자연보호에 관심이 있고(그래서 나를 구해준 것이다.), 이



우리가 해와 달, 바람을 찬양하는 노래를 들었을 때  
당신들은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백인들은 인디언의 이야기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자연계 속의 다른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곳 「요세미티」에는 방학 때 마다 찾아 온다고 했다.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자연의 오묘함과 경탄을 금할 수 없는 질서의 세계에서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미미한 것인가를 확인했고, 그 한심한 인간이 당장의 이익 때문에 지구를 오염시켜 〈오존층 소멸〉〈온실효과〉〈산성비〉그리고 〈사막화 현상〉등으로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음을 안타까워 했다.

그리고 그녀는 진심으로 미국의 자연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것은 미국인 특유의 애국심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 미국 땅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인을 경멸하고 있었다.

“저는 아메리카 인디언을 사랑합니다. 특히 〈견는 들소, 타탕가 마니(Walking Buffalo Tatanga Mani)〉를 존경합니다. 그가 여든 일곱살 되던 해 영국 런던에서 한 그의 연설은 지금도 외우고 있습니다.”

그녀는 눈을 지그시 감고, 시를 낭독하듯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 했다.

“자연의 언덕들은 돌로 지은 빌딩들보다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도시에서의 삶이란 인공적인 것에 불과하죠, 도시의 사람들중 많은 이들이 발밑에 밟히는 흙을 느껴 보지도 못하고,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는 일이라곤 화병 속의 꽃들을 보는 것이 고작이며, 밤거리의 가로등 불빛에 가리워져 밤하늘에 점점이 박힌 별들의 장관을 구경하지도 못합니다.

우리엔 당신네들 것과 같은 법은 없지만 우리는 창조자이시며 만물의 통치자이신 위대한 영과 사이 좋게 살아왔습니다. 당신네 백인들은 우리를 야만인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이해하지 못했으며,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와 달 바람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을 때 당신들은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그토록 나쁜 것입니까?

당신들은 나무들이 말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물론 나무들은 말을 하지요. 그들은 서로 서로도 이야기하지만 만일 당신이 진정으로 그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인다면 당신에게도 말을 건네 줄 것입니다.

백인들은 인디언의 이야기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자연계 속의 다른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이제 당신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의 눈에는 우리가 더 없이 비참하게 보인다고 해도, 우리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고 느끼며, 그래서 우리는 적은 것을 갖고도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들의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다고 설득시키려 한다면 당신들은 스스로를 한 없이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자연(오늘의 USA가 아니라 그 옛날 아메리카 인디언 시절의 자연) 사랑과 진정으로 그 자연을 사랑했던 아메리카 인디언의 사랑은 끝이 없었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거의 똑 같은 순간에 둘다 잠들어 버렸다. 이야기에 취하고, 알콜에 취하고, 그 알콜은 또 방안의 열기에 취하고 나는 장거리 여로의 피곤마저 겹쳐 누가 엮어가도 모를 정도로 꿈 속에 빠져, 방금, 들은 그 옛날 아메리카의 드넓게 펼쳐진 거대한 평야와 아름답게 굽이치는 능선들을 감돌아 흐르는 시내와 그 옆으로 영켜서 자라는 초목들 사이를 들소와 함께 헤매고 있었다.

우리의 우정은 겨울 요세미티에서 나홀 동안, 눈사람 같이 깨끗하고 단단하게 그리고 둥글게 뭉쳐졌다. 그리고 89년 여름 그녀는 UN환경계획에서 발간한 책자에서 내가 글로벌 500 위원으로 선출되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다며, 진심어린 축하의 인사와 함께 자신도 최근 이혼한 남편과 다시 결합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보내 왔다.

그리고 아메리카의 진실을 잊지 말아 달라며, 앞의 이야기의 계속을 타자가아닌 육필로 또박또박 정성껏 써 보내 왔다. 그중에서 타탕카-오히



**계절의 바뀔마저도 커다란 원을 이루어서 언제나 처음의 자리로 되돌아오지요. 사람의 일생은 어린시절에서 다음 어린시절까지 원을 그리며 힘이 작용하는 곳이면 어디서나 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티카(Tatanka-ohitika)라는 한 수우 인디언 의술사가 말한, 와칸 탕카(Wakan Tanka, 만물의 근원인 성스러운 존재라는 뜻)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 한다.

“열 살쯤 되어 땅, 강, 머리 위의 하늘, 내 주위의 동물들을 보게 되었을 때 나는 그것들이 어떤 위대한 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나는 이 힘에 대해 알고 싶어 견딜 수 없던 나머지 나무와 풀들에게 질문을 했다. 마치 꽃들이 나를 눈감박 앓고 쳐다보는 것 같았다. 그래서 <누가 널 만들었니?>하고 물어보았다. 그리고 이끼 낀 돌들을 바라보았다. 그들 중 몇 개는 사람 모습을 하고 있었으나 대답해 주지는 않았다.

그 후 나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속에서 그 조그맣고 둥그란 돌들 중에 하나가 나타나 그 모든 것의 창조는 와칸 탕카이며 그를 섬기기 위해서는 자연 속의 그의 창조물들을 섬겨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어떤 돌들이 땅 속에 묻혀 있지 않고, 높고 외딴 언덕의 꼭대기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뜻이 있는 것이다. 그들은 해나 달처럼 모양이 둥근데 우리는 둥그렇게 생긴 것이면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본질에 있어 닳은 것은 자라서도 서로 닳게 되는 것이며 이 돌들은 오랜 세월 동안 태양을 보면서 자라 왔던 것이다. 자갈이나 조약돌이라면 물살의 흐름에 의해 둥근 모양이 형성되지만, 이 돌들은 물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며 단지 태양과 바람만 보고 있을 따름이다.

대지는 그의 표면 깊숙한 곳에 그와 같은 돌들을 수천 개 품고 있다. 천둥의 새가 이들 돌들과 관련이 있다고 말해지는데 사람이나 동물이 죄를 지어 벌을 받을 때면 이 천둥의 새가 그들을 때려

주는 것이다. 만일 이 번개빛 진로를 추적할 수 있다면 필경에는 이 돌들중의 어느 하나가 땅속에 묻혀 있는 곳에 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같은 맥락(圓의 사상)의 글로 수우족으로 부터 분파된 오그라라(Oglala)파의 <검은 사슴>히하카 사파(Hehaka Sapa)가 말년 「1930년」에 <불타는 무지개>에게 받아 적게한 글을 소개 한다.

“여러분들은 인디언들이 하는 모든 일이 원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만 그것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항상 원 모양으로 작용하며 만물이 둥글게 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하는 모든 일은 원을 이루지요. 하늘은 둥그렇고, 지구도 공처럼 둥글다는 말을 들었고, 모든 별들도 그렇지요. 바람도 억세게 불 때에는 회오리처럼 둥글게 돌죠. 새들은 그들의 종교가 우리의 것과 같기 때문에 등지를 둥글게 만드는 것이지요. 해가 역시 원을 이루지요. 달도 마찬가지로이며 해와 달도 둘다 둥그렇지요.

계절의 바뀔마저도 커다란 원을 이루어서 언제나 처음의 자리로 되돌아오지요. 사람의 일생은 어린시절에서 다음 어린시절까지 원을 그리며 힘이 작용하는 곳이면 어디서나 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인 티피도 새의 등지처럼 둥그렇고 이들은 언제나 원을 이루며 세워지는데, 이로서 위대한 영계서 우리 자손들을 키우라고 점지해 주신 보금자리 중의 보금자리, 민족의 고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筆者 : 本會 顧問 / UNEP 글로벌 500 委員〉